



중년의 P변호사, 허영고 멀썩한 얼굴의 그는 축복받은 수재였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일류학교부터 고시합격까지 승승장구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판결문작성에서 토씨하나 틀리면 불안해 할 만큼 완벽주의자였다. 다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소홀했고 주위의 고통에 무관심했다.

그는 법률회사에 들어가 전문변호사가 되었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고 신문을 드는데도 평소보다 팔이 무거웠다. 아내가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할 때였다. 무심코 팔을 뺐치던 그는 “어, 어, 어...” 하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급히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신화속의 돌로 변하는 인간처럼 그의 몸은 마비되어 갔다. 입과 코에 여러 개의 튜브를 끼운 채 검사가 이어졌다. 발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간신히 의사를 전달했다. 의사전달이래야 가래를 없애달라는 요구정도였다. 두 주가 지나자 발가락까지 작동을 멈췄다. 그런 중에도 정신만은 물로 씻은 듯 맑은 이상한 병이었다. 곤혹스러워 하던 의사들은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이한 병이라는 사실만 알아냈다.

‘산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다 헛되고 부질 없었어...’

허망했다. 고통도 항상 나만은 예외일 것 같았는데... 실감이 나지를 않았다. 밤늦은 시각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한번 믿게 해보십시오. 제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믿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네 하고 말입니다.’

기관지에 가래가 끓는데도 간호사는 관심을 갖지 않기에 원망하고 험박할 데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는 매달리기 시작했다. 3주가 넘은 어느날 갑자기 발가락이 간지러웠다. 마비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 후에는 양치질도 가능해졌다. 칫솔이 역기만큼이나 무거웠다. 목구멍에 끼웠던 튜브가 성대를 눌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몸만으로도 그는 이미 모든 걸 얻은 것 같았다.

몇달 후, 새로운 변호사가 한명 태어났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 그는 하나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여쭙는다. 항상 일등이어야 하는 강박증이 사라졌다. 그는 이제 아픈 사람을 찾아가 기도할 줄도 안다. 그는 이제 삶에 있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말한다. -엄상익(변호사) -

◀그림은 약장시절 이런 친구 꼭 있다▶

- [5위] 체육시간에 우향 우, 좌향 좌 혼자 헛갈리는 애
- [4위] 점심 시간에 도시락 뚜껑으로 가리고 혼자 먹는 애
- [3위] 손바닥 맞을 때 피해서 두 번 맞는 애
- [2위] 애국 조회때 꼭 쓰러지는 애(그럼 적어도 3명은 교실로 들어갈 수 있다.)
- [1위] 선생님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데 "진도 나가요"하는 애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4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0월 20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티파니에서 식사를.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꼭 인사드려야 할 분들에게 안부드리면 고급 식당으로 안내되어 포식을 합니다. 냉면이 제일 먹고 싶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갈비등 고기가 주요 메뉴입니다. 그러기에 정작 먹고 싶은 것은 혼자서 해결합니다.

이번 방문중 남대문 시장에 생활용품을 살겸해서 친구 아들 베낭을 빌려 메고 갔습니다. 지하도를 오르니 큰 양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번데기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한컵에 2,000원짜리를 반컵만 달라고 하면서 1,000원을 냅니다. 헌 교과서를 찢어 삼각형으로 말아 담아주던 것에서 자판기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으러 바뀐 것 외에는 맛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몇발자국 가니 가래떡을 군침당기게 구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어디 군침당기는 게 그 떡만이였겠습니까?) 두 개 1,000원 짜리를 500원을 내고 한 개만 사서 번데기와 번갈아 먹습니다. 조금가니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길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꼬치에 낀 어묵(일명 오뎡)을 연인들끼리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간장 종지에 서로가 먹던 꼬치를 찍어 먹게 비위생적이라 멀리하던 것인데 그날은 욕구가 팔꿈을 앞질러 나도 한켠에 끼였습니다. 한 개 500원 짜리를 두 개나 똑딱.

다시 아직 남은 번데기를 들고 물건 시찰을 나섭니다. 몇발자국 앞에 껌질을 칸 군밤 무대기가 먹음직스러워 묻지도 않고 달랬더니 2,000원이나 합니다. 봉투안을 세어보니 고작 7개. 성급했던 것에 후회하면서 한입에 넣지 못하고 반씩 깨물어 먹습니다. 미처 다 먹지 못했는데 중국 호떡이 보입니다. 뽕뽕한 군밤이기에 달콤한 중국호떡이 구미를 당깁니다. 한 개 500원에 사서 들고 다닙니다. 아마 가게 주인들이 보면 연변에서 온 사람이 고향의 맛을 먹고 다닐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생김새와 옷차림도 영락없이 연변 아저씨였습니다.

주머니엔 아직 군밤이 두 개나 있는데 어릴 때 학교 정문 앞에서 설탕을 녹여 팔던 뽕기를 초로의 부부가 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녹이고 아내는 별,하트등 모양을 찍었습니다. 1,000원에 한 개를 사서 침 발라가면서 떼다 부러뜨려 반이나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추억을 샀다 생각하고 발길을 계속 했습니다. 리어커에 노란 참외를 파는 아저씨가 피곤한지 즐고 있길래 굳이 깨워 500원을 주고 한 개만 깎아 달래서 먹으니 문득 한여름의 더위속에 먹던 참외의 단 냄새가 온 몸을 감싸안습니다. 참외로 디저트까지 마치니 세상 부러운게 없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철을 타러 내려오는 베낭안에는 1,000원자리 티셔츠 두장만이 아들용으로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서야 유리창에 비친 얼굴에 참외씨 하나가 붙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2(시 143)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202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6:19-31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천국과 지옥'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543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박기창 집사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6	노은숙	신영화	김교선.정희자	민광호.김심홍	김경구.김교선
13	이규임	사카시다	박병민.이기중	박병민.이기중	김반석.김영길
20	정희자	이기중	박상욱.이금선	박기창.한정옥	김성국.김종건
27	지찬영	이지영	박정자.김순자	박정자.박지경	김종우.김종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살뚫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6시

◆원래 비행기를 타면 잠을 이룰 수 없어 지루함이 그지 없기에 비행기를 타기 전 날은 일부러 한시간도 안 잤습니다. 덕분에 비행기가 뜨자마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평안한 ύ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교회당 내부공사관계로 예배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예배분위기를 흐트러뜨려 미안하다는 신부님의 말씀에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우리의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이번주까지는 공사가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1. 등록하심을 환영합니다
*문영미 성도(②.2구역).문영.병훈.상목(조카) ☎ 528-1648 ☐ 1/23 Abraham Pl. St. Johns
*박실, 변민강 집사.재범(① 2구역) ☎ 274-9975 ☐ 11Mullagh Pl. Howick
*이재유 성도.동국.현국(② 8구역)☎ 836-0880 ☐ 24 Roberts Rd. Te Ataatu
*강선숙 성도.자훈(② 8구역)☎ 836-8777 ☐ 99 Roberts Rd. Te Ataatu
2. 봉헌하여 주셨습니다
*성가대용 보편대와 교육용 White Board를 봉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운영하시는 학원의 공간을 교회교육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해 달라시는 아름다운 마음들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Tea Time 중에 아동부.학생부.청년부, 성가대 담당자(부장, 부감) 모임을 갖겠습니다
*목적: 크리스마스행사를 위한 모임
4. 제2 여선교회 월례회를 예배 후 본당 Sunday school Room
*30-40대 여성 교우들의 모임입니다.
- 5.3 교회 체육대회(다음주일): 주의교회.임마누엘.갈보리
*작년 이맘때 처럼 벌써 1년이 되어 3교회가 함께 모여 체육대회를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Labour Day 휴일인지라 전날 마음껏 뛰어도 부담이 없을 겁니다
<장소> YMCA Stadium(서쪽 Massey) <시간> 주일예배 후 오후 3시부터 늦게까지
*아동부감독:김지은 교사 *학생부감독:윤한나 집사
*족구감독:양경배 집사 *여자배구감독:윤현권 집사
6. 어제 결식자 급식봉사(제2여선교회)와 골프모임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 Congratulations!
*권용일, 이지영 집사 가정: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하늘나라 시민권은 진작에 취득했습니다)
8. 수요일예배: 말씀안에 나를 붙들어 둘 때 나와 내 가정이 안전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엄마가 딸에게

예쁘게 걷고 예쁘게 앉아라
비뚤어져 알잡히는 것보다는
단정하여
대우받는게 좋지않겠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큰소리치지 마라
진짜 광패는 목사에게
고개숙이더구나
넌 광패만도 못한자가 되선 안된다